

시킴으로서 現狀維持에 功獻했다. 그러나 이 모—든 理論에게 共通한 것은 그것들이 一元論的 立場을 보인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汎階級理論도 反眞理일 것이며 汎統合理論도 半虛僞일 것이며 汎中間階級理論 또한 半眞理를 免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階級과 階層은 社會의 動態와 靜態의 兩面일 뿐이다.

(註) 講演의 理論的 準據는 나의 恩師 Ralf Dahrendorf 教授의 아래와 같은 論文과 책들인 것이다..

1. Struktur und Function : i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7/4 (1955)
2. Out of Utopia : Toward a Reconstruction of Sociological Analysis :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LXIV/2 (1958)
3.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London, 1961
4.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Ⅱ/2 (1958)

現代 韓國農村階層의 實態

李 萬 甲

從來 韓國農村人口의 社會階層을 研究하는 方法은 主로 經濟學的 方法이었다. 이 方法에 依하면 土地의 所有 農村經營規模 農家의 財產 및 所得 消費等의 差異에 따라 農村社會의 階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 要因 以外에 다른 要因을 고려 하는 것도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卽 上述한 諸經濟的 要因과 더불어 韓國社會에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門中——이는 대개 양반階級에만 局限된 것이지만——과 班常의 要因은 過去에 있어서는 물론 오늘에 있어서도 韓國農村社會의 階層形成의 重要한 要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去의 身分的 要因以外에 教育水準 社會參與等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土地所有問題에 관해서 말하자면 해방전 韓國에서 農業에 從事하는 人口중 (朝鮮總督府 調査에 依할것 같으면) 小作이 全體의 46.5%. 自作이 31.0%, 地主는 0.8%에 不過하며 自作도 17.5%뿐이었다. 大多數의 農民은 地主에 隸屬되었으며 그들은 점점 貧窮하여 적지 않은 數가 더 낮은 階層으로 轉落하고 또는 農村을 떠나 流浪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후 自作農이 急激히 增加하였다. 이러한 自作農의 急增은 勿論 農地改革의 結果라 하겠지만 그러나 農地改革의 直接的인 結果라고 하기 보다는 農地改革을 豫想한 地主, 小作人間의 去來에 依해서 이루어진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9년 6월의 農地改革에 이르는 解放後 4년間的 某種의 農地改革이 不可避하다는 生覺이 巷間에 流布되었으며 이 때문에 土地所有者가 싼 값으로 土地를 轉賣하는 일이 盛行

하였던 것이다. 農地改革으로 말미암아 地主는 急速히 沒落하게 되었다. 地主는 農地改革에 對해 反抗을 하지 못했다. 土地 대신에 그들이 받은 地價證券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한낱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李朝以來의 傳統的인 身分社會의 門中團結은 農地改革의 結果 많이 弱화되었으며 이러한 門中團結의 弱化는 農村의 近代化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主로 兩班 階級을 中心으로한 門中은 日政時代에는 오히려 農村支配의 手段으로 保護되었으나 解放後 그의 經濟的 地盤을 크게 喪失함에 따라 그 團結이 弱化되어 그에 매어 있던 家族은 漸次 獨立的 家族으로 나서게 되었다.

法에 依하여 土地를 3町步 以上 所有할 수 없게 되었다는 制限과 1年에 한 번 收穫하는 農業에 投資하는 것은 利得이 적으므로 過去와 같이 土地를 크게 所有하는 地主는 나설 수가 없게 되었다. 一部에서는 新興地主의 形成을 云爲하는 사람이 있지만 新興地主는 거의 볼 수 없으며 不在地主보다는 在村地主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農村에는 20% 내지 30% 가량의 小作農과 農業勞動者가 있다. 그들은 農村에 있어서 先決을 要하는 問題의 對象이 되어 있다. 또 農家의 零細化는 耕作地가 增大하고 있지 못하므로 더욱 深刻해지고 있으며 增加하는 農象人口를 他 方面에서 吸收하지 못하면 더욱 零細化할 것이 分明하다. 다른 部面에서 農村社會를 보면 舊來의 身分制度는 아직 觀念上으로는 殘存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은 通婚에서 아직 嚴格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兩班出身은 오늘날 常人出身보다 經濟的으로 優越한 位置에 놓여 있지 못하며 점점 다른 農民과 同等한 位置에 서게 되어 가고 있다. 다만 prestige의 立場에서는 아직도 過去의 身分이 크게 作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 動機의 強烈化에 따라 그러한 것도 漸次 弱化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農村에서는 教育이 相當히 重要な 意味를 가지고 있다. 教育이 있는 者는 農村에서 보다 더 合理的으로 生覺할 能力을 가진 사람이며 解放後 激動하는 社會的 狀況속에서 보다 더 成功的으로 적응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사람이다. 極히 最近까지 農村의 生活을 左右하는 家口主들 中에는 學校教育을 받은 사람의 數가 극히 적었지만 지금은 이 數가 급속히 늘고 있다. 앞으로 家口主가 더 많이 學校教育을 받은 사람으로 構成되면 비단 家族內의 여러 問題뿐만 아니라 村落內의 여러가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問題는 보다 合理的으로 보다 民主的으로 解決될 可能性이 增大할 것이다. 또 하나 農村社會階層을 考察하는데 重要的 것은 行政官署의 役割이다. 行政官署가 農村人의 生活에 주는 影響은 都市에서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農村人은 官을 무척 두려워 하며 그의 不當한 措置를 消極的으로 막으려 하는 한편 最大限으로 그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그러므로 農村人의 leader는 官과의 適切한 協助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쉬우며 또 그런 사람이 生活에서 優越한 地位에 서게 된다.